

# 뽕또와의 긴 독백

진솔한 수행자의  
최상의 면모

계세 뽕또와  
지음



KAGYU MONLAM INTERNATIONAL

# 뽕또와의 긴 독백



계세 뽕또와 지음

(1027 - 1105)



KAGYU MONLAM INTERNATIONAL

Kagyū Monlam  
Kagyupa International Monlam Trust  
Sujata Bypass  
Bodhgaya, 823231 Gaya, Bihar, India

언어: 한국어

번역자: 까르마 텍츝 된마 (일문)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메일: [executive@kagyumonlam.org](mailto:executive@kagyumonlam.org)

[KAGYUMONLAM.ORG](http://KAGYUMONLAM.ORG)

[DHARMAEBOOKS.ORG](http://DHARMAEBOOKS.ORG)

## 뽕또와의 긴 독백

삼계의 큰 고통 바다에서 무시 이래로 헤매 온 것은 자심(自心)을 깨우치지 못한 탓이다. 자신의 마음을 깨치지 못한 것은 장애(미혹, 가림) 때문이다. 장애는 공덕 짓기를 알지 못한 탓이다. 공덕 짓기를 알지 못한 것은 신심이 부족한 탓이다. 신심이 없는 것은 죽음을 상기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윤회계의 고통을 두려워해서 해탈과 일체 종지를 얻고자 원한다면 자심을 깨쳐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미혹을 버려야 한다. 미혹을 버리려면 공덕을 쌓아야 한다. 공덕을 쌓는 데는 신심이 필요하다. 참된 신심은 죽음을 떠올리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죽음을 상기하고 정법(正法) 외에 그 어떤 것도 소용 없음을 자각한다면 세간의 어떤 충족함에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물질과 일용품에 대한 집착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없어진다. 친척과 반연에 집착함이 진정으로 끊어져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게 된다.

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늙어서 구부정해질 때까지 살겠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노년의 희로애락에도 연연함이 없고, 다른 이들이 나를 존경하건 말건, 의식이 풍족하건 말건, 남이 나를 비방하건 말건 남들이 뭐라 하든 할대로 하라지! 라는 생각으로 이 생에서 좋고 나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생이 어떻게 되든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고 이 생을 큰 흐름에 맡겨 버려야 한다. 한 개의 화살로 사슴 두 마리를 단번에 죽일 수 없고, 개 한 마리가 두 마리 사향노루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고, 바늘 귀 두 개로

바느질 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쪽 다리는 위로 향하고 다른 쪽 다리는 아래로 내딛으면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것이다.

그처럼 이생과 다음 생 둘을 다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내생과 이후의 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죽음을 떠올린다면 모든 물질이 육식 동물 앞에 놓인 마른 풀 더미처럼 무덤덤하게 여겨질 것이다.

윤회의 고통에 진정 구역질 난다면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거듭 거듭 일어 날 것이다. 그러한 때가 오면 이생을 갈망하는 마음을 돌이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 오로지 이생을 위해 최대 최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일어난다. 간혹 나에게 애정이 있는 이들이 충고하길,

“그대는 그렇게 살지 말게. 늙으면 힘들어질 거야. 약간의 물질을 지니고 있으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걸세. 본인의 활을 들어 본인의 화살을 쏘아야지!”

라고 실로 많은 이들이 나에게 충고하곤 한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감사하게 여긴다. 그들이 해 주는 충고는 지당하지만, 그들이 나를 지극히 야키는 마음에서 하는 충고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염오심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죽지 않아도 어떻게든 죽기 마련이고, 모든 이가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들을 쌓고 모으곤 하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수행을 할 수 있겠지만, 죽어 어디서 태어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끝에도 죽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에 결단심을 내어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나중에 미루지 않겠다는 결단심을 내어라. 죽을 때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겠다는 결단심을 내어라. 한편,

“손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달콤한 오욕락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장신구처럼 여겨야 한다. 급소에 날카로운 칼이 박히는 것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과,

“혼자서 어디론가 가야 한다면 모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가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슬퍼진다.

‘내일 당장 죽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무한한 연민심이 일어난다. 우리들은 수행자의 입장에 서서 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고 수행을 하시오.”

라는 등의 말로 권유해야 한다. 여법히 수행하는 사람에게라도 중생의 더 나은 덕성을 함양하기를 충고해야 한다. 보시하는 것보다 지계하는 것이 더 나으며, 법을 듣기만 하는 것보다 명상하는 것이 더 좋다는 등 높은 덕성을 함양하도록 충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지금 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은 범부의 단계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해행(信解行)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지금 당장 (법을 향하는 마음이) 마음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죽어서 개로 태어나면 더더욱 일깨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소나 당나귀 등 축생으로 태어나 가만(暇滿; 8유가 10월만; 수행하기 가장 좋은 인간의 몸)이 없는 곳에 태어나면 더더욱 일깨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그대의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할라 치면 그대 마음을 어찌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지금보다 나올 때가 없다고 생각한다. 최상의 수행 지도자를 얻고 수행 여건의 완벽함을 기하는 것은 결정코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추진력으로 밀고 가야 하는 것이다.

장애(마구니)라고 하는 것은 시커멓고 몰골이 흉악한 존재가 아니다. 자신의 선심과 좋은 도반으로써 선량한 덕성을 함양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마구니이다.

나는 진정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죽음의 무상함을 자각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죽음을 상기하지 않으면 문사수(聞思修) 삼혜(三慧)를 닦고, 토굴 수행을 하고, 무문관 수행, 걸식, 고독행, 일종식, 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는 것들이 이생에서 어느 정도 공덕을 쌓고, 남들이 어지간하게 나를 인정해 주고, 소유물과 명성이 어느 정도 생기게 할 수는 있다 해도 이것은 오로지 이 생만을 향한 것이 되어 법으로 마음이 향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 줄기가 저수지 꼭대기에 가득 차지 않으면 흘러 넘쳐 내려가지 못한다. 화살촉이 없으면 활을 재워 쏘아도 바른 방향으로 날아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상기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법 수행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중간에 나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마음 속 깊이 진정한 죽음을 상기하면 이 생을 포기할 수 있다. 그로써 진정한 법의 기초를 처음으로 놓

게 되는 것이다. 그 때가 비로소 (구도)길의 초입에 들어 서는 것이다. 물이 저수지 꼭대기에 가득 차는 것이다. 공덕을 일깨우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이미 내면의 좋은 근친인이 있어서 나쁜 인연이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고 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생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경전을 설명할 줄 알고, 대승 밀승의 문에 들어 무이 쌍운(無二雙運)을 명상하더라도 평범한 속인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아미샤 존자께서 모든 명상의 의미를 함축하여 상중하 삼사부로 설정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처럼 이생을 추구하는 마음을 돌이켜 내생의 악도의 고통이 두려워 수행하는 자는 하사부(下士夫)이다. 그의 심속에 일깨워진 법에는 작은 가르침 정도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선지식에게서 귀의와 발심 등의 법연(法緣)을 청하였더라도, 나중에 그 선지식을 존경해서 스승이라 칭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승이라 부르면 다른 이가 자신을 비난하리라 생각하고 비밀로 한다. 만약 어떤 이가 그에게

“그 분이 당신의 스승이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그 분에게 귀의와 발심만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허물이 대단히 크다. 귀의와 발심이 일체 불법 수행의 근원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법연을 맺은 분이라 하면 그 분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서도 공덕을 발견한다. 그것은 돈을 지불하고 살래야 살 수 없는 것이라고만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생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적다. 보살행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또한 이생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 입장에서



는

‘오늘 저녁 당장 죽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는 내일과 미래의 일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법의 모든 핵심이 거기서 기인한다고 본다. 명상하는 것도 그 자체로 최상으로 여긴다. 다른 이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되어 그에게 말을 해 볼라 치면 그는 나와 생각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나를 더 걱정하고 결국 나는 그에게 실망하고 만다.

한편 내면에 확신이 없으면 법을 많이 알아도 소득이 없다. 지금 자량(資糧)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구심을 낸 이가

“당신의 말과 행동은 좀 극단적이네요.”

라고 말을 해서 나를 후회스럽게 만드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가 후회할 일이 아닌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나쁜 방편이 아닌가?

“남의 선행을 수희 찬탄하면 그 공덕의 절반을 내가 받는다고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지요?”

라고 내가 말하면 어떤 이는,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정 어린 충고를 할 따름이죠.”

라고 말한다. 애정 어린 사람의 입에서 그런 진심이 담긴 말이 나온다는 것이 나를 낙담시킨다. 그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증거이다. 나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실제로는 윤회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말로써 애정 어린 충고라 하니 나는 그 말을 아예 듣지 않으려다!

훌륭한 명상가라고 자처하거나 법을 많이 아는 대학자라는 이들도 법을 청하고 교류를 맺게 되면, 의견 일치가 되지 못하여 대화를 자유로이 이끌어 나갈 뜻이 생겨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쓸데 없는 소리만 해 주게 된다.

훌륭한 수행자로서 처음부터 이생의 의식주를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겠다고 한 이들도 옷과 음식을 축적한다.

‘나의 소중한 이생을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고서는 악업을 쌓을 일이 없는 한적한 사원에 머무르면서, ‘이제부터 수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원 없이 해 보자. 이생을 어떻게든 (수행으로) 보내 보자’

라고 생각하는 수행자가 한 둘이 아니다. 내 생각에 버려야 할 대상인 윤회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과보 원만부처를 이루는 데에는 우선 무량한 공덕을 쌓아야만 한다. 커다란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수행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담요 한 장을 거래하는 장사를 할 때, 상대에게 네 다섯 뒷박의 이익을 알지 못하게 하면 무량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군요. 그냥 거저 주는 것이 더 낫겠어요.”

라고 말한다. 수행자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부모처럼 나의 이익보다 다른 중생의 이익을 더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방법이 없다.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닦아도 거꾸로 닦는다. 중생을 이익 되게 하고자 부처의 지위를 이루려는 데에는 재물은 물론이고 몸과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조그마한 손실에도 몇 날 밤잠을 설치는 수행자가 어찌 남을 이익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자신에게도 대단한 손실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한 마을의 승가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면 다른 이들이

“그는 선업을 많이 쌓았다.”

라고 칭송하고 그 자신도

“나는 이러 이러한 선업을 쌓았다”

라고 생각하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계곡과 사원에 머물러 물건이 풍족할 때 사서 귀할 때 판다. 또한 일반 시세대로 되, 저울 등 일반적인 측량법을 쓰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여 힘 없는 이가 낙담하고 불행하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운다. 한 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시방의 모든 이가 하루 한달 일년이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행한다.

요컨대 짧은 순간 하루 아침에 쌓은 공덕에 안주하고 일생 쌓은 악업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은 정말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내면에 어떠한 확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들이 아집과 욕심으로 행한 이런 태도로 인해 악업이 (익으면) 저절로 돌출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악업으로 인한 이숙과(異熟果)로 삼악도에 태어난다는 것을 들어 보지도 못하였는가? 혹은 들었다 해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오히려 그 보다 이생에서의 악명과 내생의 고통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재물을 좀 얻을 듯이 여겨지면 당장이라도 몸, 생명, 법을 버릴 수 있는 이들은 자비심을 일으켜야 할 대상이다. 고통의 인(因)에 머무는 것이 행위의 결말이다.

지금 당장 몇몇 사원으로 가서

“여기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요?”

라고 물으면 몇몇이 있다고 대답한다. 다시 묻기를,

“그들은 주로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라고 하면

“그들은 대학자 성자, 지식 있는 이, 깨달은 자, 남에게 널리 이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금과 터키석, 말, 소, 전답과 재산과 하인을 이 만큼 지닌 사람, 이 사원의 핵심적인 인물, 이처럼 행하고 이런 등등의 사람이며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칭한다. 이른 바 ‘좋은 사람’이란 아주 부유한 사람을 말한다. 대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야망이 크고, 이생에만 관심을 두는 자이다. 부자들은 대체로 악행과 불명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이므로 수행하는 도량에서 진정한 불법 수행이 없다. 그 때는 얼음이 얼기 시작한 연못을 떠나가는 새처럼 그대도 그곳을 떠나야만 하리라. 다시 오욕에 집착과 탐착하는 것은 결국 고통으로 이끄는 것이므로 남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지라도 그 과보는 자신이 이생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불교 교의에 아예 관심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수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행하되 자신에게 보답이 있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 베풀면 좋은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게 보답이 오지 않는가?’

하고 바라는 마음을 내어 내심 불편할 수도 있다. 거기에 보답이 없으면 화를 낼 수도 있다. 상대방은 얼굴을 붉히거나 무기력하고 당혹하게

된다. 수행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이는 그의 동료 수행자에게라도 이생에 필요한 음식 등의 먹을 것을 조건부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가 나에게 주는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 결국 음식을 주거나 받거나 해서 종국에는 법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

나아가 모든 수행자들이 법에 전심을 쏟지 않고 늪에 곤궁해질 것을 걱정해서 재물을 모은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확고한 보장을 받으려고 어떤 식으로든 추구하는 그것은 법에 확신이 없다는 증거이다. 법에 신심이 있다면 가장 확고한 보장이라는 것은 법보다 나은 것이 없다. 수행만 여법하게 하면 늪에 곤궁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늪을 때까지 살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늪으면 재물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미루어 볼 때, 내생에 윤회의 고통 만을 확실히 겪게 될 것이다. 이들은 준비 혹은 보장이 라고 하는 내생의 희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생의 늪은 자신에게만 오는 것이고, 내생의 고통은 자신의 원수나 적에게만 오는 것처럼 행한다. 이러한 부류의 수행자들은 진정으로 법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을 생각하지 않음에 자타 모두 의미 없는 고통만 초래한다. 것처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아직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수행은 하지 않으면서, 악행을 하는 데는 온갖 준비를 다 하고 힘 들지 않게 저절로 악행을 행한다. 이들은 사원의 부유한 승려들이 죽음과 윤회의 고통을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그대들 유명한 인사들이 비난하는 것과 같이 한다. 내가 늘 말하듯이,

“이들의 행은 작은 집을 버리고 큰 집을 취하는 행위.”

그것일 뿐이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수행이라 할 지라도 아집(我執)은 속인보다 더 견고하다. 이것이 윤회계를 떠도는 증거이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한다. 수행하는데 수행 준비를 하지 않는 그것도 법에 신심이 없는 것이다. 수행을 함으로써 고통이 닳칠까 두려워한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손에 약간 얻어지는 이익이 있으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 재물을 갈구하는 이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자신의 법과 수행이 일치하지 않고서 어찌 남이 들어주길 바라는가?

자신이 물자를 갈구하는 증거로 남에게도

“탁발하십시오. 장사를 하시오. 재물을 모으시오. 어느 정도 재물이 없으면 스승도 그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친구들도 화를 낼 것이오.”

라고 말한다. 그들의 말과 법은 거꾸로 되어 버렸다. 그것은 자신의 말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이다. 생각과 행이 둘이 되어 거꾸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

이번 생만을 위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하는 행위도 이생의 이상만을 추구한다. 마음에 출리심(出離心)이 있는 자와 보살행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회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어떻게든 타익을 위해 이타행을 실천하고자 하며 수행도 그렇게 한다. 경전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행해야 한다.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남에게도 말해야 한다. 자신은 여법히 행하지 않으면서 남을 향해 빈 말을 하면 가루다 사다나를 행하는 문둥병자에게 가는 것처럼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러 오는 이가 없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스승도 좋은 가문, 부자, 담대한 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이, 친지들에게 호평 받는 사람을 주목한다”

라고 말하는 한편 죽음을 두려워하여 법을 추구하는 범형제들과 신심 있는 이들도 탐욕스럽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비효율적이며 경솔하며 무능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친지, 도반, 선지식, 주지, 라마 스승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멸하고 능숙하게 저버린다. 허장성세와 부유함, 야망, 타협을 잘 하는 것은 보리를 이루는 것과 는 반대의 길이다.

수행자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이생의 이익과 명예와 재산과 오욕락을 원수처럼 허물로 보아야 한다. 이생의 갈구를 포기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도와 주지 않으면서 부유하고, 유명하고 타협을 잘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스승 또한 진정한 영적 선지식이 아니다.

”자격 있는 선지식이라면 물질적인 공양 없이 중생에게 법을 보여야 한다”

라고 하듯이 법을 여실히 수행하는 그것 만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좋은 승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정진력 있는 이는 이생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이는 법을 온전히 믿고 이해하는 이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윤회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며 원만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께 신심 있는 이는 오로지 법을 추구한다. 허풍스럽고 유능하고 능란하고 야망에 찬 이는 부처의 경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원만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방편에 능숙해진다면 (그를) 야망찬 수행자라 부를 것이다. 능수능란하다는 것도 그것(원만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방편에 능숙해지는 것)을 말한다. 행위에 능숙

하다는 것도 그것을 말한다. 수행자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현자라는 것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소송이라는 것도 그것이다. 좋은 스승이라는 것도 그것이다. 속히 부처를 이루는 것도 오직 그것이다. 논장도 그것이다. 경장도 그것이다. 율장도 그것이다. 문사수 삼해도 그것이다. 행하기 어려운 일체 고행을 행함에 온 힘을 다 모아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논장의 계승에서 구야사마자 이하의 경장과 일체 밀교부도 오직 사람 하나의 법이다. 부처님께서 교화하실 때와 당시의 교화 대상 몇몇을 생각하시고 설하신 것이다. 불필요하게 설하신 것은 없다. 모든 법은 다 똑같다.

“이건 우리 법이야, 그건 그들의 법이야.”

라고 하면서 남의 법을 비난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성팔천송>에서 말씀하신다.

어떤 개인에 관해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법을 심사 숙고해서 행해야 하므로 그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양적으로 이생을 지향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결코 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위하는 사람도 있고, 타인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가 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는 있다.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허물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참으로 법을 수행하려면 자신의 재산이 필요하다. 자신의 재산이 없다면 남이 나를 돌보아 주어야만 한다. 나에게 재산이 있다면 남이 나를 돌보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물은 수행하는 데 조력자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죽음의 무상함을 생각지 않고 법에 확신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마음 속 깊이 진정한 죽음의 무상함을 생각하지 않고 상기하지 않으면 법을 얻을 길이 없다. 진정한 죽음을 상기한다면 마음에 담을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물건에 집착하는 것을 마음 어디에서 바랄 것인가?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죽기 전까지 내 자신의 재물을 쓰고 죽을 때 가져 가겠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이 생에 집착하는 사람’ 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재물이 있어서 남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수행에 임하고 있는 사람보다 나은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원만 부처의 지위를 성취하는 데에 마음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커다란 보석 하나를 살 때에도 자신의 돈을 모으고 부수적으로 더 보태고 살펴 보고 사게 된다. (먹고 마시고 일상을 향유하는) 이런 데 마음 쓸 줄은 알면서 자신의 마음이 더욱 많은 법을 아는 데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심오한 가르침에는 신경도 안 쓴다.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자심(自心)이 법신(法身)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영향을 받게 된다. 좋은 스승을 찾을 때는 바로 지금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스승을 찾아 뵈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보다 위선적으로나마 명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데는 무한한 공덕을 쌓아야 한다. 지금 스승을 찾지 않고 짐짓 명상하는 형상을 짓고 있는 것이 지당한 일인가? 좋은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가피로 자신에

게 선정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마음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는 부처가 되는 것보다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 정도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 같다.

거듭 말하지만 법은 야망과 독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법은 신심과 정진과 지혜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스승 옆에 모여 드는 이들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법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운집해야 한다. 야망과 큰 독단과 큰 사기꾼을 보고 모인 것이 아니다.

어떤 선지식께서 심오한 법을 주실 때에는 정작 커다란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서, 선지식이 그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시면 은혜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 그러한 사람은 스승과 가르침을 찾는 이를 비난한다.

어떤 이가 두어 짐의 빛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에 그를 야끼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충고하기를,

“그대는 거기로 좀 가면 이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 가야만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대가 없는 동안 그대의 짐을 내가 지켜 주겠다.”

라고 호언장담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매사가 원만 구족한 것을 보장 받고도 나 홀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직접 눈을 크게 뜨고 보는 자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놓고 가야 하는 이것을 모든 영악한 독단적인 야망에 찬 사람들은 알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80살에 이른 이들도 아직까지 이생을 향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때 이 사람의 성품(성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일시적 행복을 위하는 모든 이들도 경솔한 것이다. 늙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생만을 추구하고 살면 내생은 그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죽음이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죽음에 임박해서는 마음을 놓아 버려야 한다. 이생의 온갖 풍요와 모든 원만 구족한 것을 놓고 가야만 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속인의 풍족함이다. 지금 우리는 세속인을 동경하고 속인은 도리어 우리를 동경한다. 속인처럼 행하는 사람을 동경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와 등 돌린다고 말한다. 배우자를 맞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속팔법(世俗八法:세간에서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8가지. 즉, 이익·손해·명예·불명예·칭찬·비난·즐거움·괴로움)에서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

공덕을 쌓는 것도 마음이 법으로 향하는 것이다. 크게 존경 받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눈 멀고, 손발이 잘려 나가고, 남루한 옷이 해지고 어느 누구도 손 붙잡아 주는 이가 없어도 마음이 오로지 법으로 향하는 그것을 공덕 쌓는 것이라 말한다.

요즘은 모든 이들이 재물을 쌓는데 유능한 이를 좋은 성향을 지닌 남녀라고 칭하는 것 같다. 재물을 쌓아 놓고 죽는 것을 많이 보았다. 재물 쌓기는 축생들도 할 줄 안다. 들쥐는 도마(뿌리 열매)를 모아 저장할 줄 알고, 벌은 꿀을 모을 줄 알며, 땅 쥐는 풀더미를 쌓고 새들은 각자의 둥우리를 어찌하면 더 잘 틀 수 있는지 정도는 안다.

무엇보다 보시를 하면 아귀에 태어나지 않고,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약본 반야바라밀경>에서 설하신다. 우리는 노년을 야심 차게 준비하는 것을 칭송하는데, 그보다도 언제나 법을 여실히 실천하는 농사를 짓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부처를 이루는 방편에 능숙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길을 잘 안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길에 들어서서 가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바로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요건을 다 갖추어 놓고 나서 명상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준비를 완벽하게 다 갖추는 때는 오지 않는다. 온 생을 준비하는 데에만 쏟아 버린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밀승(密乘)과 율장(律藏)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밀승에 의거하지 못한 것이 라면 그것은 율장이 아니다. 율장과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밀승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차례 밭에 물도 주고 간혹 쟁기질해서 경작을 해야 한다. 그러한 일들에도 온 힘을 쏟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경작함에 수확이 따를 것이다. 하물며 법을 수행함에 있어서랴!

간혹 법을 많이 아는 선지식(스승)들 가운데 말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애당초 죽음을 두려워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에서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을 만큼 크게 존경 받는 것, 스승이라 불리는 것, 장로, 비구, 계세(석학) 이라고 칭해지는 것을 성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문사수(聞思修)를 행한다. 그런 이는 다 배워서 알고 나서

도 사원의 소임자와 가까이 지내고 모든 이가 그의 비위를 맞추게 한다. 또한 비구계를 받고 대덕인양 행세하면 모든 이가 그를 수행자라고 부르게 된다. 맨 처음 경장을 조금 공부하고 나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도 조금 받고는 명상을 한다고 말을 한다. 교묘한 갖가지 방편을 써서 다른 모든 이들의 상석에 앉고서는 대단한 학자인양 요란한 칭송을 받는다. 명성이 자자해지기를 바라는 계세들은 윤회계에서 벗어날 인연이 없다.

오욕의 대치를 할 줄 모르면서 법을 잘 아는 지도자가 무얼 하겠는가?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무엇으로 다스리겠는가? 자신의 속내 이익을 끊지 못하고, 인과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서 소임과 일처리에 능통한 사람이라 이름난들 무엇을 하겠는가? 내생에 악도에 태어난다면 교언영색(巧言令色)이 무슨 소용인가? 윤회계와 오욕락의 집착에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고상한 행이 무슨 소용인가? 염라대왕의 업경대를 누가 속일 수 있겠는가? 보리심과 타익을 위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는 세속팔법을 추구하는 스승이 무슨 소용인가?

악업을 지은 과보로 이숙과(異熟果)의 고통을 겪는 내가 슬플 때 누가 벗이 되고 도움이 되어 주겠는가?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이생에서 누리는 욕락과 이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없는 법을 나와 남의 마음 속에 어떻게든 일깨워야 하고, 즉각 실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댕가이다.

싸다 빠라 루디따처럼 부처가 아니면 어떤 것도 원치 말아야 한다. 주로 이생만을 중시해서 법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무 소용 없고 그러한 법을 들으려 하는 이도 없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생에서만 이익이 되는 짓만 골라 자행할 것이다. 자신의 욕심에 차지 않으면 스승의 가르침이라도 거역할 것이다.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여겨지면 신심이 아주 강한 듯이 스승에게 공경심을 보이는 척 하는 자가 있다. 이것이 나를 마음 속 깊이 화나게 한다. 가만(暇滿)의 이 몸은 대단히 얻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법을 추구하는 생각이 털 끝 만큼도 없다. 법을 잘 알기만 하는 것을 수행자의 공덕이라고 칭송한다. 크게 잘못 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알아 차리지 못한다. 나는 여기에 큰 연민과 자비심이 일어난다.

이생만을 위하는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늙어서 고통 받을 생각으로 인해 보시도 못한다. 지계 또한 희구함이 없는 것이 필요한데, 늙어 고통 받을 것이 두려워 갈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생의 탐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공덕을 쌓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생을 포기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미 세 번이나 말했다. 일체 불법의 핵심이 (이번 생을 포기하는 마음) 거기에 다 있다. 윤회와 열반의 모든 구분이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견고한 욕망의 발단이 여기에 있다. 모든 허물의 시초는 이것으로 제압된다. 일체 선함과 길상함의 기초도 여기에서 비롯되므로 이생의 분별 망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분별 망상을 버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 모든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전도된 망상심이므로 그대는 어떻게든 분별 망상을 없애야 한다.

우리 모든 수행자가 처음 수행문에 들어 설 때에는 재물과 물질에 집착함이 적었고, 가까운 반연에게 애정이 얽혔고 악업과 악행에 집중하는 것을 마음에 원치 않았다. 그렇지만 정작 본격적인 수행의 문에 들어서서는 그들은 세속의 야망을 가장 중요시한다.

하찮은 일과 인색함을 자행하고서도 능력 없는 다른 이가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 부치고, 말을 만들어 내고 그를 험담하고 불길한 징조를 퍼뜨려 놓고 결국에는 구세주처럼 행세한다. 재물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장사를 하더라도 다른 이가 할 수 없는 선까지 해 버린다. 시작은 수행으로 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재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자행하는데 이 또한 죽음을 생각지 않은 뗏가이다.

불법을 여실히 수행하면 모든 원적도 조복 받고 모든 친근한 생각도 거기서 난다. 일체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도 그들에게 가피를 주시고, 일체 스승 선지식의 바램도 거기서 충족된다. 자신의 모든 소원도 천신과 호법신중님들이 채워 주시므로 일체 여의 원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이 법으로 향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일체 경설(經說)도 이 마음 하나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모든 도반들 혹은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서열이 높은 이들, 지금은 저명하고 유명하지만 그들도 반드시 죽을 것이며, 죽는 데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총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죽을 때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죽을 병에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죽을 생각이 없어.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 이 늙은 귀신이 지금 죽지 않을 수만 있으면 나는 진정한 법을 수행할 것이야!”

라고 후회한다면 때는 이미 늦어 버렸다. 욕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불타는 윤회계를 헤메고 있지만 성불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짧은 수명은 반드시 소진할 것이므로 이생을 포기하고 참된 법을 여실히 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이익 되리라 생각지 않고 나 혼자 내  
뺨은 말이다. 진정 어린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라면 나를 벌책해도  
된다.

계세 뽕또와의 긴 독백은 법을 수행하는 구경의 증거입니다.